

한국어 복수 표현의 의미론적 특성들

전 영 철
서울대학교
ycjun@snu.ac.kr

0. 들어가기

본고에서는 한국어 복수 표현들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의문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적당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i) 체언의 복수형을 위해 복수 표지 ‘-들’이 붙을 수도 붙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표지는 단지 수의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 유무가 어떤 의미론적 차이를 동반하는가? 후자라면 그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ii) 체언 외에 붙는 ‘-들’은 무엇인가? 복수 표지인가? 복수 표지라면 체언에 붙는 것과 같은 것인가? 다르다면 그 기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iii) 한국어에서 복수와 총칭성, 한정성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복수 표지 ‘-들’의 유무에 따라 총칭성 및 한정성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I. 두 종류의 복수형

영어와 같은 언어들에서 가산 명사의 복수형에는 반드시 복수 표지가 붙어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어에서는 가산 명사일지라도 복수형에 반드시 복수 표지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두 종류의 복수형을 ‘들’-복수형과 □-복수형이라고 부르코자 한다.¹⁾

이 두 종류의 복수형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이들 사이에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임흥빈 2000, 곽은주 2001/2003, 백미현 2002), 또 하나는 의미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강범모 1994/1999). 본고에서는 의미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이러한 입장의 위 세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직관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한다. 곽은주(2003)는 복수 개체를 합(sum)과 집단(group)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 Link(1984)와 Landman(1989)의 제안을 토대로 ‘들’-복수형과 □-복수형의 의미 차이를 설명한다. 백미현(2002)과 임흥빈(2000)은 인지 의미론적 설명 방식을 공통적으로 취한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백미현(2002)은 개념적 바탕(conceptual bases)의 차이에 의해 이 두 복수형의 의미 차이가 유발된다고 설명한다.

곽은주(2003)는 합과 집단의 두 해석 중에서 합 해석만이 분산적(distributive) 해석을 허용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두 복수형들 중에서 ‘들’-복수형만이 분산적 해석으로 사용됨을 보임으로써 ‘들’-복수형은 합 해석을, □-복수형은 집단 해석을 취한다고 설명한다.

- (1) a. 학생들이 각자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다.
b. #학생이 각자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다.
- (2) a. 학생들이 선생님께들 질문을 했다. (분산 표지 ‘들’)
b. #학생이 선생님께들 질문을 했다.
- (3) a. 엄마가 아이들에게 풍선 하나씩을 주었다. (분산 표지 ‘씩’, Choe 1987)
b. #엄마가 아이에게 풍선 하나씩을 주었다.

1) 이에 대한 다른 명칭으로는 곽은주(2003)의 복수표지의 명사구(plural-marked NPs)와 원형 명사구(bare-formed NPs) 및 백미현(2002)의 유표형(혹은 분산적(distributive)) 복수와 무표형(혹은 집단적(collective)) 복수 등이 있다.

백미현(2002)은 실세계의 공간에 복수의 개체들이 존재하지만 화자가 이들을 각각의 개체로 파악하는 것보다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는 것이 한국어 사용자들에게는 더 자연스럽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이러한 더 자연스러운 인지 방식을 위해 사용되는 □-복수형은 무표형이고 복수 개체 각각을 인식함을 나타내는 ‘들’-복수형은 유표형이라고 주장한다. 임홍빈(2000)은 ‘들’의 개체화 기능에 대해 상술하였으며, 다음 예의 ‘사람’을 가산성에 의존하여 단수로만 처리하는 이남순(1982)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 (4) a. 사람이 왔다.
- b. 사람들이 왔다.

(4a)의 ‘사람’은 언제나 단수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을 위해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두셋이 온 경우에도 쓰일 수 있는데, 같이 온 사람들 각각을 따로따로 문제 삼지 않을 경우에 사용된다고 지적하였다. 동일한 상황에서 (4b)를 사용하면 같이 온 사람들 각각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들’은 개별화나 개체화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두 학생들’이나 ‘두 사과들’과 같이 수사나 수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가산 명사 뒤의 ‘들’의 사용에 의견의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이러한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관찰은 송석중(1993), 백미현(2002) 등에서 나타난다. 송석중(1993: 362)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터어키어와 헝거리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소개하면서 소위 우랄 알타이어족의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백미현은 수사가 개별화의 기능을 이미 하는데 ‘들’이 덧붙여짐으로써 잉여적이 되어 부적절하다고 설명한다. 한편, Kang(1994)과 임홍빈(2000)은 이러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Kang(1994: 3)은 ‘두 학생들’과 같은 인간 명사의 경우는 허용되나 ‘두 사과들’과 같이 비인간 명사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유정성이 높을수록 개별성이 높다는 유정성 위계를 도입하면 설명이 가능하다고 언급한다.²⁾ 즉,

2) 개별성이 유정성 위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송

유정성이 높은 인간 명사는 개별적으로 인지되는 경향이 있어서 개별성을 나타내는 ‘들’이 용이하게 부착되지만(‘두 학생들’), 유정성이 낮은 명사는 개별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개별성 표지인 ‘들’과 공기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더 나아가 임흥빈(2000:16-18)은 ‘들’의 개별성이 유정성 위계를 넘어서서 맥락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해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 (5) a. 두 친구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위기를 넘겼다.
- b. 두 책들에 있는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

이 문장들에서는 개체의 특이성이 부각되는 해석이므로 개체들의 개별화가 요구된다고 한다. 따라서 유정 명사인 ‘두 친구들’뿐만 아니라 비유정 명사인 ‘두 책들’에서도 개별화의 표지 ‘들’이 허용된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존재문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 (6) a. ?*너에게는 두 친구들이 있다.
- b. ?*두 책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단순한 존재의 의미만이 부각되므로 개체의 특이성이 덜 부각되어 개체들의 개별화가 중요하지 않다. 비유정 명사뿐만 아니라 유정 명사에도 개별화 표지의 사용이 어색하다.

이상에서 ‘들’-복수형과 □-복수형이 서로 다른 복수성을 나타냄을 임흥빈(2000), 백미현(2002), 곽은주(2003) 등의 설명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들’-복수형에 의해 표현되는 복수성은 그 구성 개체들이 개별적으로 인지되는 반면에 □-복수형에 의한 복수성은 그 구성 개체들이 한 묶음으로 인지된다. 따라서 전자는 분산적 용법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못하다. 이들은 설명의 기반이 서로 다르지만, 결국은 동일한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가지 복수형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판단된다.

석중 1993, Kang 1994, 임흥빈 2000, 백미현 2002, 등).

II. ‘들’-복수형

위에서 살펴본 ‘가산 체언+들’외에도 ‘들’은 비가산 체언이나 비체언에도 붙어 복수 표지 역할을 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 (7) a. 재미들 있었니?
- b. 황망하게들 떠났어.
- c. 빨리 가세들.

임흥빈(2000)을 빌어 이 두 ‘들’-복수형들을 각각 ‘직접 복수’와 ‘간접 복수’라고 부르자.

이러한 두 종류의 ‘들’-복수형은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직접 복수는 ‘들’이 붙는 명사의 복수 의미를 직접 표시하는 반면에 간접 복수는 주어 명사의 복수 의미를 표시한다는 것이다(최현배 1961: 241, Chung 1978, 송석중 1993, 백미현 2002 등). 그래서 간접 복수를 주어 복수성의 복사(송석중 1993, 백미현 2002 등)나 이동(Chung 1978 등)으로 설명한다. (7)의 예들은 주어 복수성의 복사 및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설명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 (8) a. 남편이 아이들을 예뻘들 한다.
- b. 그 집 주부는 아이들을 애지증지들 키웠다.
- c. 철수가 아이들을 교실로들 보냈다

주어가 단수인데도 간접 복수가 출현하므로 주어의 복수성에 기대는 설명은 성공적일 수 없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논의를 곽은주(2003)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위의 논의와는 달리 간접 복수를 복수를 위한 표지가 아니라 분산을 위한 분산 표지(distributive marker)로 처리한다. 그리고 분산 표지는 합(sum)을 나타내는 ‘들’-복수형 주어와의 일치를 요구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집단

(group)을 나타내는 □-복수형 주어가 나타나는 (9b)는 이러한 일치를 어겨 적절하지 못하다고 한다.

- (9) a. 학생들이 선생님께들 질문을 했다.
b. #학생이 선생님께들 질문을 했다.

그러나 (9b)는 괜찮은 문장이다. ‘학생’이 집단적 복수로 사용될 때 뿐만 아니라 단수일 때도 (9b)는 온전한 문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유사한 문장 구조에서 명백한 단수 주어가 나타나는 다음의 예들도 문제가 없다.

- (10) a. 철수가 선생님께들 질문을 했다.
b. 철수가 친구에게들 선물을 주었다. (임홍빈 2000: 42)

결국 이 논의들은 동일한 문제점에 봉착한다. 즉, 간접 복수를 주어의 복수성과 관련지어 설명하므로 단수 주어의 문장에서 간접 복수가 출현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임홍빈(2000)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접 복수의 올바른 설명을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한편, 임홍빈(2000)은 간접 복수의 역할을 그것이 접미된 성분의 복수를 유표적으로 나타낸다고 본다. 그리고 문제의 성분의 의미가 복수적인 사건과 개별적으로 관련된다고 본다. 즉, 사건 복수의 개념을 도입한다. 가령, 부사 뒤에 붙는 간접 복수는 부사의 복수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바로 이 부사와 관련된 사건의 복수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8b)에서 ‘애지중지들’의 ‘-들’이 ‘애지중지’의 복수를 나타낸다는 것은 결국은 ‘애지중지’가 포함된 ‘그 집 주부는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다’라는 사건의 복수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복수의 사건의 주어가 복수인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 주어가 반드시 복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수 주어가 다른 대상과 더불어 복수의 사건을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가령 (10a)는 철수가 선생님께 질문하는 사건이 복수적으로 발생하

였음을 나타낸다.

직접 복수가 ‘들’이 붙는 명사의 복수 의미를 직접 표시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런 설명 방식은 직접 복수와 간접 복수를 동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된다. 즉, 모든 복수 표지는 그것이 접미된 성분의 복수를 나타낸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처리되었던--문법 기능을 가지는 어떤 요소가 자기 관련 요소가 아닌 다른 성분 뒤에 쓰인다는 식의 설명--간접 복수를 다른 문법 요소들과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뜻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런데 이에 더 나아가 임홍빈(2000)은 직접 복수도 개체 복수의 개념을 넘어서 중국에는 사건 복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건 복수의 개념은 신사건의미론(Neo-Davidsonian Semantics)의 틀 속에서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Landman 1996 참조).

직접 복수와 간접 복수를 위한 ‘들’외에 복수를 나타내는 ‘들’의 또 다른 용법이 있다.

- (11) a. 갑, 을, 병, 들이 있더라. (최현배 1961: 219)
 - a. 배, 감, 포도 들이 많다. (금성관 국어대사전: 의존명사)
 - b. 쌀, 보리, 콩, 조, 기장 들을 오곡이라 한다. (연세한국어사전: 의존명사)
 - c. 책상 위에 놓인 공책, 신문, 지갑 들을 가방에 넣었다. (표준 국어대사전: 의존명사)

최현배(1961)에서는 이러한 ‘들’을 완전한 씨로 취급하는 반면에 직접 복수나 간접복수의 ‘들’을 뒷가지(접미사)로 취급하여 이들을 분명히 구별한다. 그런데 백미현(2002)은 다음의 예가 흥미롭다고 언급한다.

(12) 들 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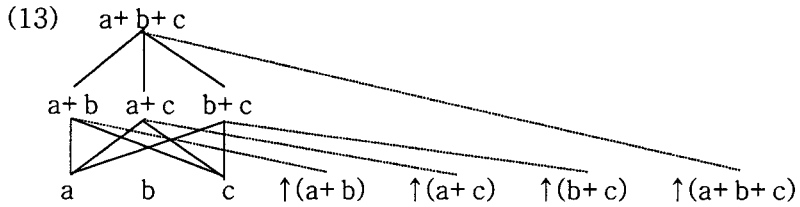
아무 성분에 붙지 않고 자유 형태소처럼 문장 안에서 자유롭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접미사가 아니라 부사로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예측한다. 본고는 이것을 (11)과 같은 의존명사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12)는 화자 앞에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로 그 여러 명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치 ‘군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같이 앞에 있는 청년을 가리키며 ‘김 군’이나 ‘이 군’과 같이 말하지 않고 의존 명사 ‘군’만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복수성/총칭성/한정성

1. 복수성과 총칭성

한국어에서는 복수형(‘사과들’)보다 단수형(‘사과’)이 총칭명사로 더 적합하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영어 등에서는 원형 복수형(bare plurals)이 총칭명사로 흔히 사용되는 것과 달리, 왜 한국어에서는 원형 단수형이 더 선호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집단과 총칭성과의 관계에서 찾고자 한다. 집단은 여러 개체들의 묶음을 지시하지만 그 개체들의 개별성은 무시하고 묶음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총칭명사구는 종류(kind)를 지시하는 것으로 집단과 개념적으로 통한다.

완전 원자 합 세미래티스(complete atomic join semilattice)인 모형 $\langle E, \leq, +, AT \rangle$ 을 설정한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 보자.



집단은 합(sum)과 같은 복수 개체로 합으로부터 집단형성함수 (group formation function) \uparrow 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그런데 합과는 달리, 원자로서 원자들의 집합(AT)에 속한다. AT는 집단이라는 비순수 원자(impure atoms)와 단수 개체인 순수 원자(pure atoms)로 구성된다. 즉, $AT = \{a, b, c, \uparrow(a+b), \uparrow(a+c), \uparrow(b+c), \uparrow(a+b+c)\}$ 이다.

종류는 속성(property) P로부터 체언화 함수(nominalization function) \uparrow (down)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데, 종류란 그 실현체들(instances)의 총체(totality)라고 할 수 있다(Chierchia 1998). 속성의 외연은 E에 해당하며 단수 및 복수의 개체들을 모두 포함한다.

- (14) a. $\uparrow P = \iota P$ (the largest member of P)
 b. $\uparrow P \sqsubset AT$

위의 두 사실로부터 종류는 $\uparrow \text{supremum}(\uparrow P)$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종류는 전체의 합(supremum)에 대응하는 집단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종류는 특수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류는 집단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 단수형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보통의 집단과 달리 특수한 집단으로서 종류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5) a. 전체의 합으로부터 도출된다.
 b. 순수 원자들의 집합이 최대한(?) 크다.

종류는 그 속성상 한정적이다. 종류는 전체의 합에서 도출되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iP (the largest member of P)).

곽은주(2003: 23)가 지적하듯이 어떤 집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집단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관련된 사건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가령, 어떤 과의 교수가 넷인데 한 명이 연구년이어서 나머지 세 교수가 학과 교수회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했더라도 그 결정은 그 과 교수회의의 결정으로 간주된다. 이는 바로 총칭성의 특성이기도 하다. ‘개가 짖는다’라는 총칭문의 총칭 주어 ‘개’가 이 세상의 모든 개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를 지시한다. 성대에 이상이 있어 짖지 못하는 개가 있더라도 이 문장은 성립한다. 집단과 종류의 공통성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다음의 예에서 집단과 종류에 대한 중의성이 감지되는 듯하다.

(16) 사과가 배보다 맛있다.

가령 뷔페에서 후식으로 사과와 배를 맛보고 나서 하는 말이라면 집단적 해석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화자의 취향에 대해 말할 때라면 종류의 해석을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종류가 집단의 일종이라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중의적 해석을 보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두 해석 모두 사과나 배의 총체를 지시하는 것이나 총체성이 발휘되는 범위가 다를 뿐이다. 전자는 뷔페 내에 있는 사과와 배에 대한 총체를 지시하는 반면에 후자는 이 세상의 사과와 배에 대한 총체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특수한 집단으로서 종류가 갖추어야 되는 조건인 ‘순수 원자들의 집합이 최대한(?) 크다’는 데에 반영되어 있다.

2. 복수성과 한정성

한정성의 관점에서 보통 명사의 복수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지만 단수형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보인다. 가령, ‘학생들’이 한정적 또는 비한정적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학생’에 대해서는 오로지 비한정적이라는 견해(백미현 2002, 곽은주 2003)와 한정적 또는 비한정적이라는 견해(전영철 2002)가 양립한다.

- (17) a. 학생이 시위를 한다.
b. 학생들이 시위를 한다. (백미현 2002: 60)
- (18) a. 내가 학생을 데려 오겠어.
b. 내가 학생들을 데려 오겠어. (곽은주 2003: 15)

이 예문들에서 백미현과 곽은주는 ‘학생’이 비한정적인 해석을 가진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비한정적인 해석이 선호되는 해석이기는 하나 유일한 해석은 아니다. 가령 다음의 예를 보자.

- (19) A: 누가 학생을 데려 오겠니?
B: [내가]_{focus} 학생을 데려 오겠어.

이 대화에서 B는 ‘학생을’을 빼고 ‘내가 (데려 오겠어)’라고 더 빈번히 말하겠으나, ‘학생을’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학생’이 한정적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더라도 맥락에 의해 ‘학생’이 이미 노출된 상태라면 ‘학생’은 한정적일 수 있다. 학생들의 집단 행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17a)를 발화한다면 ‘학생’은 한정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원형 단수의 한정성에 대한 중의성은 음운론적 실현에 의해 상당히 해소된다고 생각한다. 저음조로 실현될 때 ‘학생’은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격표지, 화제표지 등의 첨사들에 의해서도 한정성에 영향을 받는다. ‘학생’은 단/복수로도 중의적이므로 결국은 4중으로 중의성을 띤다고 판단된다.³⁾

3) 중국어(Li 1999): haizi-men 'the children': 오직 한정적

haizi 'the/some child/children': 한정적/비한정적

일본어(Nakanish 외 2004): otokonoko-tati 'the/some boys': 한정적
/비한정적

(이전에는 오직 한정적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

복수성과 한정성의 관계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지시사+ 단수형’이 집단(적 복수)를 지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남기심/고영근 1985, 송석중 1993, Kang 1994, 백미현 2002, 곽은주 2003). 그러나 한정성이 복수성을 제한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 (20) a. 사과가 크다.
- b. 이 사과가 크다.

(20a)의 ‘사과’는 상황에 따라 단수 개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사과 하나를 손에 쥐고서), 복수 개체(집단)을 가리킬 수도 있다(상자 안에 든 사과 더미를 보면서). 그런데 동일한 상황들에서도 (20b)의 발화를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때 ‘이 사과’는 한정적인 단수 개체와 한정적인 복수 개체(집단)를 가리킨다. ‘사과’는 한정성에 있어 중립적이지만 ‘이 사과’는 한정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복수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과’는 [±한정성]과 [±복수성]에 의해 4중으로 중의적이지만, ‘이 사과’는 [±복수성]에 의해 2중으로 중의적일 뿐이다.

임흥빈(2000: 8)의 다음 예는 이러한 입장을 잘 포착한다.

- (21) 이 국회의원이 다 무엇을 하느냐?

부사 ‘다’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국회의원’은 분명히 단수 개체가 아닌데도 복수 표지 ‘들’이 쓰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것은 분명히 복수 개체를 가리킨다고 본다. 지시사+ 단수형이 한정적

았음을 지적)

otokonoko 'the/some boy/boys': 한정적
/비한정적

원형 명사구의 한정성에 대한 본고의 판단은 Nakanish 외(2004)의 일본어에 대한 관찰과 유사하다.

인 복수(집단)을 가리키는 예로 볼 수 있다.

강범모(1994: 17)는 다음의 ‘이 사과’가 단수 개체와 하위 종류(subkind)를 가리켜서 중의적이라고 한다.

(22) 이 사과가 맛있다.

한편 그는 지시사+단수형은 단수 개체만을 지시할 뿐이지 복수 개체는 지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2)은 (20b)와 유사하므로 우리의 설명에 따르면 단수 개체 및 복수 개체(집단) 사이의 중의성을 가져야 한다. 유사한 예를 두고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나는 것은 복수 개체에 대한 서로 다른 체계 때문이다. 우리는 복수 개체로 합과 집단을 다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강범모는 단지 합만을 복수 개체로 설정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데에서 이러한 차이가 비롯된다. (22)에서 ‘이 사과’가 하위 종류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체계 속에서 집단을 가리킨다는 것으로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종류가 집단의 특수한 유형임을 살펴보았다. 동일한 맥락에서 하위 종류도 집단의 범주 안에 속한다. 이렇게 되면, 지시사+단수형에 대한 강범모의 이견은 해소된다고 하겠다.

곽은주(2003: 28)는 다음의 예를 통해 지시사+단수형이 집단을 지시할 수 없다고 한다.

(23) 그 학생들이/#그 학생이 모였다.

집단 술어(collective predicate) ‘모이다’의 주어로 ‘그 학생들’은 허용되지만 ‘그 학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학생’은 집단의 해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들은 사정이 이렇듯 단순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24) a. 그 벌들이/그 벌이 모였다.

b. 그 사과들이/그 사과가 모아졌다.

이 예문들에서는 ‘그 별’ 및 ‘그 사과’가 허용된다. 이것은 유정성 위계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human]의 ‘학생’은 유정성이 아주 커서 개별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어서 복수 개체를 지시할 때 개별성을 유표적으로 표시하는 ‘들’이 덧붙여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에 이보다 유정성이 낮은 표현들은 ‘들’이 동반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과들’은 합을, ‘이 사과’는 집단을 지시함은 다음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5) a. 이 사과들은 각각 모양이 다르다.
 b. *이 사과는 각각 모양이 다르다.

전술하였듯이, ‘각각’에 의해 분산적 해석이 요구되므로 합을 위해 ‘들’이 필요하다. 지시사+단수형은 단수형과 마찬가지로 집단적 복수를 나타낼 뿐이다.

IV. 맺는말

한국어의 복수 표현들에 대해 들어가기에서 언급한 세 종류의 질문들 각각에 대한 해답을 구해 보았다. 첫째, ‘들’-복수형에 의해 표현되는 복수성은 그 구성 개체들이 개별적으로 인지되는 반면에 □-복수형에 의한 복수성은 그 구성 개체들이 한 묶음으로 인지된다. 둘째, 가산 체언에 ‘들’이 붙는 직접 복수는 개체 복수를 위한 표지이고, 그 외의 성분에 ‘들’이 붙는 간접 복수는 사건 복수를 위한 표지이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간접 복수뿐만 아니라 직접 복수도 사건 복수를 위한 표지로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종류는 특수한 집단, 즉 전체의 합에 대응하는 집단이므로 종류는 집단과 마찬가지로 단수형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원형 단수형과 원형 복수형은 모두 한정적으로도 비한정적으로도 쓰이며, 지시사+단수형은 단수 개체뿐만 아니라 복수 개체도 나타낼 수 있다.

본고의 논의에서 많이 언급된 논문들이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에도 서로 독립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낀다.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를 공유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희 (1976), “복수표시 ‘들’의 문법,” 문법연구 3.
- 남기심/고영근 (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백미현 (2002), “한국어 복수 의미 연구,” 담화와 인지 9-2:
- 송석중 (1993), 한국어 문법의 새 조명: 통사구조와 의미해석. 서울: 지식산업사.
- 이남순 (1982), “단수와 복수,” 국어학 11: 117-141.
- 임흥빈 (1979), “복수성과 복수화,” 한국학논총 2: 179-218.
- 임흥빈 (2000), “복수 표지 ‘들’과 사건성,” 애산학보 24: 3-50.
- 전영철 (2002), “한정성 효과: 한정성 제약과 비한정성 제약,” 언어와 정보 6-2: 83-104.
- 전영철 (2003), “한국어 총칭 표현들의 의미론적 분석,” 언어학 37: 267-295.
- 최현배 (1961), 우리말본, 세 번째 고친 판, 정음문화사.
- Kang, Beom-mo (1994) Plurality and Other Semantic Aspects of Common Nouns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3-1: 1-24.
- Kang, Beom-mo (1999) “양화의미: 복수, 물질, 타입,” 강범모 외 (1999) 형식 의미론과 한국어 기술: 114-156.
- Chierchia, G. (1998) Reference to Kinds across Languages. *Natural Language Semantics* 6: 339-405.
- Chung, Kook (1978) On the Peculiarity of the Korean Plural Marker, *어학* 5: 93-105.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 Dayal, V. (2004) Number Marking and (In)definiteness in Kind

- Term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7: 393-450.
- Kwak, Eun-Joo 2001. The Semantics of Bare-formed Plurals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6-2: 311-330.
- Kwak, Eun-Joo 2003. Interpretations of Plural Noun Phrases in Korean.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35: 3-38.
- Landman, F. (1989) Groups I, II.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559-605, 723-744.
- Landman, F. (1996) Plurality. In S. Lappin (ed.)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425-457.
- Li, Y. (1999) Plurality in a Classifier Language. *Journal of East Asian Language* 8: 75-99.
- Link, G. (1983) The Logical Analysis of Plural and Mass Terms: A Lattice Theoretic Approach. In R. B□ uerle, C. Schwarze, and A. von Stechow (eds.) *Meaning, Use and Interpretation of Language*: 302-323.
- Link, G. (1984) Hydras: On the Logic of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with Multiple heads. In F. Landman & F. Veldman (eds.) *Varieties of Formal Semantics*: 245-257. Dordrecht: Foris.
- Nakanishi, K. and S. Tomioka (2004) Japanese Plurals are Exceptional.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3: 113-140.